

뮤지컬 「영웅」 제작 이야기

이 우 종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뮤지컬 「영웅」 제작의 동기

2005년에 제작된 뮤지컬 「명성황후」는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의 성공신화를 이루어 낸 독보적인 예술품이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우리에게 제작사인 '에이콤(Arts Communications)'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작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과연 어떤 작품으로 관객들을 맞이해야 하나? 깊이 있는 작품성, 화려한 연출과 감동적인 음악 등 보다 안목이 높아진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제작자와 우리 운영위원들은 명성황후 시해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05년 제국주의의 깃발을 들고 아시아 진출을 꿈꾸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야욕 아래 일본의 조선침략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는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영웅 안중근을 떠올렸다. 재판기록문에 남겨져 있는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총장 안중근이 '자신은 일개 일본인을 살해한 형사범이 아니라 독립전쟁 중에 적장을 처단하고 체포된 전쟁포로임을 밝히며,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 중 첫 번째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고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선의 왕비를 시해한 책임을 묻고 거사를 단행한 안중근에게서 우리는 그와 명성황후와의 인연의 끈이 시공(時空)을 뛰어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100주년이 되는 날인 2009년 10월 26일, 그의 독립운동의 일대기를 담은 공연의 막을 올리기 위해 창작뮤지컬 「영웅」의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림 1〉 단지동맹

픽션을 통해 극의 흥미를 더하다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10년 3월 26일 뤼순(旅順)감옥에서 목숨을 거두기까지 32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다. 특히 그가 1908년 30세의 나이에 의병군을 조직하여 참모중장의 직책을 맡은 이후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는 데까지는 일 년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짧고 단조로운 그의 인생을 소재로 흥미로운 작품을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당시 유명한 소설가에게 대본 제작을 부탁하였으나 극작에 대하여 난색을 표했다. 우리 제작진은 작품의 독창성과 참신함을 높이고 관객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과감하게 신인작가에게 극본을 맡겼다. 그 결과 뮤지컬 「영웅」은 위대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극적 연출을 위한 가상의 인물들과 러브 스토리가 재미를 더하는 요소로 가미되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가상의 줄거리로 창조된 대표적 인물이 ‘설희’이다. 설희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의 손에 죽어간 경복궁 옥호루(玉壺樓)의 참상을 목격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당시 14세의 명성황후의 마지막 궁녀로 설정되었다. 그녀는 명성황후에 대한 회한과 자신의 미력함에 괴로워하던 중 고종황제가 일본 동향을 살피기 위해 만든 국가 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帝國益

聞社)’의 요원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나미다(涙:눈물)라는 이름의 게이샤(藝者)가 되어 이토 히로부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의 총애를 받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토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번민하면서도 명성황후의 복수를 기획하는 기구한 운명을 노래한다. 이토의 제안으로 하얼빈 행 열차에 동행하게 된 설희는 이토 암살을 기도하지만 실패하고 기차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는 인물로 명성황후와 안중근을 이어주는 차갑지만 뜨거운 조국애를 가진 여인으로 묘사되었다.

또 다른 가상인물은 ‘왕웨이’와 ‘링링’이다. 왕웨이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국 식당을 경영하는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안중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인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탄생하였다.

왕웨이는 독립군들의 친구이자 친형 같은 존재였지만 이들을 도우며 안중근의 거처를 끝까지 합구하여 일본 경찰에게 죽임을 당하는 의리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려졌다. 안중근의 동지 왕웨이의 여동생이자 안중근을 짝사랑하는 어여쁜 소녀 링링은 안중근에게 발사된 일본 형사의 총을 대신 맞고 숨지고 마는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연출한다. 이처럼 남매가 조선독립군을 위해 살신성인을 한다는 극적인 픽션은 뮤지컬의 흥미와 감동을 더하게 만들었다.



〈그림 2〉 왕웨이의 만두가게

사상가이자 의인, 안중근

천주교 집안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유복한 유년을 보내며 신부가 되고자 했던 안중근은 태어날 때부터 배와 가슴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 7개가 있어 아명을 응칠이라 하였다. 이미 16세의 나이에 동학 운동에 맞서는 의병으로 활약한 바가 있는 안중근은 그 다음해에 동학의 패잔군이 되어 몇 달 동안 안중근의 집에 머물게 되는 백범 김구선생으로부터 위태로운 조선의 정세 이야기를 듣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훗날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중근은 영기(英氣)가 넘치고 여러 군인들 중에도 사격술이 제일로,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재주가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 안태훈을 따라 천주교에 입교하고 발렘 신부로부터 토마스(Thomas,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는다.

안중근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삼웅학교와 돈의학교를 운영하던 중, 고종의 퇴위, 정미7조약 체결, 대한제국 군대 해산 등의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로 떠난다.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총장으로 한인 의병조직 동의회(同義會)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11명의 동지를 규합하고 원손 무명지를 끊어 결의를 다지는 단지동맹을 감행한다. 그는 조선이 처한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하고자 하얼빈 역에서 민족의 원수 이토를 살해한다.

그의 재판기록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토 저격 당시 7발 중 6발만 쏘고 총알 한발을 남긴 이유는 놀라웠다. 그는 “나는 일본 군국주의는 증오하지만 결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토를 쏘고 난 뒤 나머지 총부리를 거둬들였다.”라고 말했다. 안중근은 조선의 독립과 동양평화에 그의 인생 전부를 건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옥중에서도 계속 집필활동을 하며 수 백점의 붓글씨를 남

기는 등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생활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자신을 성심껏 돌봐준 간수 치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 감사의 선물로 ‘爲國獻身軍人本分：나라가 위태로운 때 몸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을 써줄 정도로 인간적인 교분을 나눴다. 치바는 감옥에서 뒷바라지하던 중 안중근의 인품에 감동되어 존경하는 선생님이로 모시었고, 훗날 귀국한 후 일본 미야기(宮城)현 다이린지(大林寺)에 안중근의 위패를 봉안하였고, 그의 후손들이 아직도 기리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집행 전, 집행관이 마지막 소원을 묻자 책을 다 읽지 못했다며 5분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읽고 있던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 읽고 교도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세상을 떠났다. 이렇듯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의연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5개월 동안 본인의 자서전이자 철학서인 ‘안응칠역사’와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세계평화와 조국의 미래를 걱정한 사상가이자 의인이다. 그는 어떻게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 암울한 시기,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면서 공존하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 놀라울 따름이다.

뮤지컬에 담지는 못했지만 안중근의 사형집행 전 가족의 면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어머니의 면회는 일본에 의해 처절하게 거절되었고, 어렵게 면회가 성사된 두 동생에게 안중근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주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 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최후의 유언을 남긴다.



〈그림 3〉 하얼빈 저격

구전에 의하면 안중근의 순국이후 그의 가족의 삶은 여지없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한다. 계속되는 일본의 감시와 협박에 못 이겨 처참한 날을 이어가던 중에 안중근의 장남 안문생(아명;분도)은 연해주로 피신하였다가 끊임없이 안중근 가족의 동태를 살피던 일본순사가 준 사탕을 먹고 어린나이에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안중근의 유언에 따라 막내 동생 안공근은 러시아로 망명 한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하다 1939년 살해당하였으며, 남동생 안정근 역시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해방이후에도 끝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1949년 상하이에서 사망하였다.

안타까운 사실은 안중근의 둘째아들 준생의 이야기다. 안준생은 중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다 1939년 10월 만선시찰단(滿鮮視察團)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이토 히로부미의 위패를 봉안한 박문사(博文寺)에서 아버지의 거사에 대해 사죄하였으며, 조선호텔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차남 이토 분키치(伊藤文吉)를 만나 역시 사죄하였다. 결국 일본은 안중근의 아들 준생을 통해 이토 살해에 대한 사과를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았다. 이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던 안중근의 깊은 뜻을 저버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일본인들에게 시달렸으면 아버지의 거사

에 대해 사과를 할 수 밖에 없었을까하는 인간적인 측은함마저 느끼게 된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35년간 추산할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와 형언할 수 없이 잔인한 국권피탈의 아픔을 겪었다. 이 기간에 안중근의 시신은 일본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행방이 묘연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영웅을 기리는 일이나, 그의 시신을 찾으려는 노력 등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인 것이 현실이다. 결국 안중근 의사의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마지막 유언은 아직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4〉 재판정

뮤지컬 「영웅」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

우리가 뮤지컬의 제목을 안중근으로 하지 않고 영웅이라 칭한 것은 안중근과 함께 목숨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아름다운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다. 조도선, 우덕순, 유동하는 뮤지컬 「영웅」을 통해 재조명받은 독립 운동가들이다.

1879년 함경도 흥원에서 태어난 조도선은 1895년 러시아로 건너가 세탁업과 러시아어 통역에 종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과묵하고 무뚝뚝한 사내이며 사격 솜씨에 있어서는 안중근과 자웅을 겨루는 명사수이다. 충북 제천 출신의 우덕순은 을사조약 이후 국권회복 운동에 참여하는 해학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유동하는 18세의 어린나이에 이토 살해라는 거사에 참여하였으며, 옥고를 치른 이후에도 사회주의 혁명군으로 활약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짧은 생애를 마친 인물이다. 안중근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살해에 참여한 이 세 사람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된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용기 있는 이 젊은이들을 뮤지컬을 통해 주목받게 한 점은 제작진을 비롯하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또한 안중근의 영웅적인 삶 뒤에는 아들만큼 용감하고 의연했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있었다. 조 마리아 여사는 뤼순 감옥에 갇힌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에서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조소거리가 된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公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안중근을 담담히 격려했다. 그리고 사형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살려고 몸부림하는 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려라.”고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안중근은 어머니가 손수 지어 보낸 흰 명주 수의를 입고 사형대에 오른다. 자식의 죽음을 앞둔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선택을 끝까지 지지해주는 의연함을 보

이고 있어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적은 각 나라의 영웅인 경우가 많다. 안중근이 우리나라에서 영웅인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다. 뮤지컬 「영웅」에서는 주변 국가를 침탈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을 주장한 일본의 인물이지만,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 견지에서 그의 인품과 야망을 그리고자 노력하였다.

해외진출을 향한 또 하나의 도전

2009년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막을 올린 뮤지컬 「영웅」은 벌써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브로드웨이 공연, 2015년에는 역사의 현장인 중국 하얼빈에서 감동적인 공연을 올렸으며, 벌써 국내 공연만 열 차례 이상 진행될 정도로 그 도약이 눈부시다.



〈그림 5〉 하얼빈 공연 포스터

하얼빈 공연은 사실 불가능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순간은 단 이틀간 세 번의 공연을 위해 헌신을 다한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얼빈 공연의 셋업기간이 평소보다 길게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장치의 해외이동,



〈그림 6〉 하얼빈 공연기념

비용문제로 인한 최소한의 스태프 구성, 현지 스태프들과의 작업방식의 차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불가능에 가까운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아침 일찍 공연장에 가서 밤늦도록 연습에 매진해준 배우들의 노력이 더해져 본 공연을 시작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7일 드디어 하얼빈 공연의 첫 막이 올랐다. 안중근 의사의 재판장면을 담아 15가지의 일본의 죄목을 폭로하며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살해한 자신은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일본 법정을 통렬히 비웃는 ‘누가 죄인인가?’ 장면이 끝나자마자 함성과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제작진은 우리 콘텐츠가 해외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격스러웠다. 커튼콜이 끝나고 한국 창작 뮤지컬을 극찬하며 나오는 관객들을 보며 공연장 곳곳에서 묵묵히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들의 땀방울이 더 값지게 느껴졌다.

뮤지컬 「명성황후」에 이어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중근의 위대한 업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픽션과 극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영웅들의 모습에서 관객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작품성에 더한 뛰어난 연출력, 화려한 무대장치와 영상효과, 감각적이면서도 전통적인 편곡과 무대의상 등 제작진들의 노고가 합

께한 결과이다.

뮤지컬 「영웅」은 22개의 서로 다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하얼빈역의 거사장면의 표현은 무대미술 작업의 중심에 놓였다. 실제 크기의 기차가 달려 들어올 수 없는 극장 여건과 열차의 도착을 기대하는 관객,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영상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하얼빈 역에 기차가 도착하는 장면과 일본 형사들과 독립군의 추격전은 영상을 통해 극의 생동감을 더했으며, 보는 이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또한 뮤지컬 「캐츠」와 「지킬 앤 하이드」 그리고 「명성황후」의 편곡을 맡아 주었던, 피터 케이스(Peter Casey)를 다시 초빙하였으며 그의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은 극의 역동성과 긴장감을 함께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뮤지컬 「영웅」은 20주년을 맞은 명성황후에 비하면 아직 도약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의 흥행에 자만하지 않고, 개선해야 하는 점들을 꾸준히 고쳐나감과 동시에 중국 등의 해외진출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창작 문화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문화융성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며, 조국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는 길이기 때문이다.